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6. 17.(수)	사진 · 영상	사진(○), 영상(×)
보도일시	2026년 6월 17일(수)부터		
제 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유인호	☎044-300-7177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청소년 사용키엔 비좁고 주말엔 문 닫는
보람종합복지센터, 전면 재구조화해야”**

- 17일 제1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공간 불균형 및 경직된 운영 지적...
수요자 맞춤형 공간 혁신 촉구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 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람종합복지센터의 공간 불균형과 경직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시민을 위한 전면적인 공간 재구조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입주 기관 간 심각한 공간 배치 불균형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유 의원은 “매월 2,500여 명의 청소년이 찾는 청소년자유공간은 턱없이 비좁은 반면, 같은 층의 유네스코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는 그 2배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람장애인주간이용센터 역시 공간 부족으로 남녀 구분이 없는 목욕실을 사용하고 필수적인 심리안정실조차 마련하지 못해 추가 공간 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통시설의 활용도 저하와 제한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보람종합복지센터는 관내 종합복지센터 중 최대 규모의 대관 공간(전체 연면적의 54%)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관 실적이 현저히 낮아 공간의 가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평일 야간과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인근 새롬센터와 달리, 보람센터는 평일 18시까지만 운영되고 주말은 전면 휴무해 시민 불편은 물론 고정유지비 낭비라는 구조적 모순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세 가지 정책 대안으로 ▲ ‘수요자 맞춤형’ 공간 재구조화 ▲ ‘이용자 중심’ 운영 방식으로의 전면 전환 ▲ 지역 주민 ‘체감형 운영 활성화 방안’ 실천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올해 말 대평동 교육청 복합지원센터 개관으로 발생하는 공실 등 여건 변화를 활용해, 복지센터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기관은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고 확보된 공간을 청소년과 장애인 시설 등 시급한 곳에 최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주말과 평일 야간 개방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자유공간이 ‘휴일 없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력 확충과 운영 지침을 즉각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유인호 의원은 “보람종합복지센터의 공간 혁신은 단발성 지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며,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